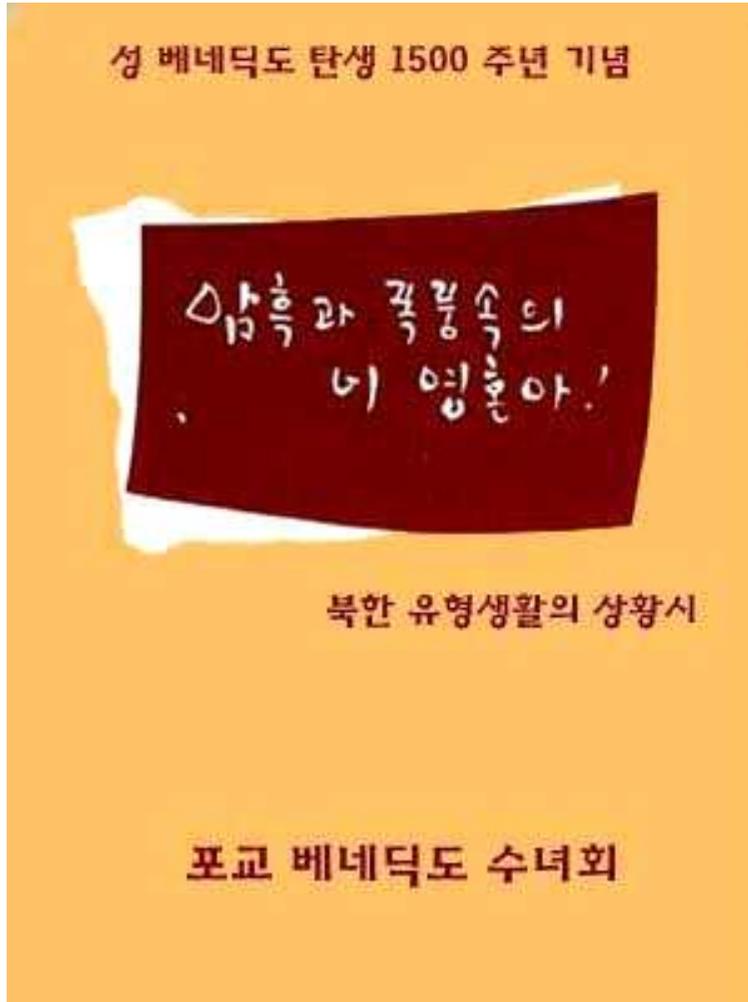


성베네딕도 탄생 1500 주년 기념



북한 유형생활의 상황시

이 시들은 고통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겪고 고통의 뜻과 의미를 그 본질에서부터 이해하고 터득한데에서 움터난 상황시들이다.

이 시들은 쇠사슬을 절그럭거리면서 <양과 수를 헤아리시며 고통과 고뇌에서 은총을 이루시는>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여 내민 손으로 쓴 것이며 십자가 위에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을 더듬어 찾고, 찾아 얻어 기뻐하는 노래다.

겉표지: 김미영 수녀

암흑과 폭풍속의 너 영혼아!!

북한 유형생활의 상황시

겔트루드 링크 수녀 지음

양 마리 비안네 수녀 옮김

분도출판사

번역에 붙여

우리 사부 성 베네딕도의 1500돌 생신을 맞는 금년을 조금이라도 뜻있게 보내기 위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겔트루드 링크 총장 수녀님의 시”번역을 서둘렀습니다. 우리 독일 수녀님들이 1925년 한국에 진출하셔서 정착한 곳은 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을 중심으로 함남, 함북에서 포교하였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엔 어려운 고비고비 주님의 손길 따라 순간을 넘겼고 1949년엔 결국 체포되어 한만 국경지대인 강계 “옥사덕”이라고 부르는 산악지대에서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옥사덕 생활은 1954년 독일로 송환되기까지 5년 걸렸습니다. 인가도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 첩첩산중에서 숲을 구원 송출했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 실린 시는 그 당시에 쓴 것입니다. 벌써 독일로 송환되었던 수녀님들이 남한으로 재진출하여 대구에 정착한 지도 어언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마다 꽃피웠던 옥사덕 이야기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옥사덕이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 시는 우리 후배 수녀님들이 옥사덕을 기억하고 십자가와 그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를 번역하신 마리 비안네 수녀님에게 깊이 감사르르 드립니다.

1980년

성 베네딕도 1500 돌 생신일에
포교베네딕도 수녀회 대구수녀원
원장 김 베다 수녀

책머리에

1954년 1월 8일 밤에 우리는 북한의 국경도시인 신의주에 도착했으니 30여 년간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국땅에서, 공산정권 밑에서 4년 반 동안의 옥살이와 수용소 생활을 그 절정으로 마치고 추방이 되는 것이었다. 체포 당시에는 67명이었는데 겨우 42만 명이 살아남았다. 그 날 밤 국경 검문소에서 소지품 일체를 뒤져, 북한에서의 선교생활이나 수용소 생활의 기념으로 간직해 온 것들을 모두 빼앗기고 특히 글로 쓴 것은 글자 한 자라도 모조리 다 압수당했다.

그러나 고통에서도 구해 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시집에 담긴 시들이다. 어떻게? 우리는 이 시들을 서로 몇 편씩 나누어서 외워 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장 쓰라린 시정에 웅었던 이 시들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고 또 우리가 억류 시절에 이 시들의 도움으로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고통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가장 힘있는 원동력이 됨을 증거했듯이 자유를 얻은 후에도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양심의 물음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온 후 이 시들을 가시 모아 몇몇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제발 이 시들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시를 쓰신 겔트루드 수녀님은 선뜻 응낙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넉넉히 이해할 수 있다. 수녀님은 이 시들이 시적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고 또 이 시 형식을 갖추지도 않았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저하였다. 사실 시적 형태는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을 들었던 것이다. 시란 인간 내면에 있어서, 깊은 정신적 체험의 압축된 자기표현으로 이 시들은 고통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겪고 고통의 뜻과 의미를 그 본질에서부터 이해하고 터득한 데에서 옹터난 상황시들이다.

이 시들은 죄사슬을 절그럭거리면서 <양과 수를 헤아리시며 고통과 고뇌에서 은총을 이루시는>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여 내민 손으로 쓴 것이며 십자가 위에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을 더듬어 찾고, 찾아 얻어 기뻐하는 노래다.

이 시들은 꾸밈없는, 체험 그대로의 것이기에 그렇게 이해되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시의 형태에 대한 평론가들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시마다 상황설명을 간단히 붙였다.

‘만일, 이 시들이 투쟁하는 심장의 표현이기만을 바란다면 고통에 짓눌린 인간에게 별처럼 떠올라 삶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강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들은 또 한편 크리스찬의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의 조용한 물음이 되고, 행동과 결단을 불러일으키리라고 믿는다.

1954년 부활절에 썬트 오티리엔 수도원에서 탁 파비아노 신부

- 번역에 붙여 11
- 책머리에
- 쟁기의 노래
- 일어나소서 그리스도여
- 서원
- 내가 안다면
- 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 대화
- 성숙
- 위로
- 그래도
- 가을
- 추수
- 그리스도왕
- 1950년 대림절
- 1950년 성탄절
- 새해 첫날
- 등신의 십자가는 나의 것
- 어두운 시간
- 고요 속에
- 하느님의 사제들
- 원수

공동체
 실망
 자유
 봄철의 걱정
 신뢰
 달혀진 문
 피로
 죽음
 죽은 사람에게
 죽음의 준비
 부르심
 성체에의 희망
 숲가마에서
 무가치
 사제서품기념(은경축)
 부활
 희망
 군세어라
 해방을 위한 기도
 이별

1945년 5월 초순에 북한에 있던 우리 독일 선교사들은 공산당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석 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난 후 북한 의 깊은 산골짜기로 끌려가서, 거기서 초막짓고 밭 일구어 농사지어 우리 힘으로 연명해 나가야 하는 수용소 생활을 했다.

김시원은 밭에까지 따라왔다. 밭이란 이름뿐이고 온통 바위 투성이, 산비탈, 돌자갈밭, 절벽들이었다. 그런 밭을 아주 원시적인 나무쟁기로 갈았다. 큰 바위돌이 있으면 쟁기는 옆으로 밀려 나고 또 쟁기가 돌위로 타 넘기도 했다. 여기저기 밭 가운데 있는 고목 밑둥치에서 해마다 싹이 움텄다.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씨와 거름 망태기를 등에 짊어지고 쟁기 뒤를 따라가며 엷은 흙을 손으로 겨우 긁어모아 한알 한알, 한줌 한줌 씨를 넣고 살살 덮는다.

산골에 살아 화전민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라면 이런 농사 일이 몸에 베어 그렇게까지 고생스럽지 않겠지만 항상 긴 자루가 달린 도구만을 써 온 서양 사람에게는, 더구나 농사일을 안 해 본 사람에게는 매일 계속해서 장시간 등을 구부리고 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순교와도 같은 고통이었다.

쟁기의 노래

쟁기가 밭이랑을 갈아엎으면
바위는 검은 피 흘린다
쟁기 뒤 따라 등 구부리고
우리는 씨를 뿌린다.

우리는 배고픔을 안다. 우리는 고통을 잘 안다.
꽃이 한창인 들판
강제노역의 피로가
우리 육신을 움맨다.

감시원은 재촉하고 쟁기는 신음하고
우리는 -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 말없이
우리네 씨를 뿌린다.

먼 빛 안에서 우리는 본다
지금 붉은 쟁기가 갈고 가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이곳에
하느님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아침기도의 응송으로

일어나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유배생활 중에 이 오래된 거룩한 기도문에서 우리는 새롭고 깊은 뜻을 체득하게 되었고 또한 시편기도도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강렬한 감동과 큰 위로를 주었다.

일어나소서 그리스도여

일어나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보소서 당신의 포도밭을
우리가 심고 가꾸어
열매 겨우 맺게 된 포도밭
애써 마련한 포도 짜는 틀
-그것은 당신의 것 -
모조리 황폐해졌나이다

우리 목숨인 양 돌보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양떼
당신의 어린 양들, 그 양 무리 속으로
주여 늑대가 뛰어들었나이다

포도주는 쏟아지고 양떼는 흩어지고
전답은 썩대밭이 되고 산야는 헐벗었나이다
당신 유산들이 원수의 나아에서
깡그리 초토가 되고 있는 것을 주여 어찌 차마 견딜 수 있나이까

우리는 당신의 목동, 당신의 종
기본 생존권마저 박탈되어 질질 끌려 왔사오나
우리는 겸손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게 내리신 당신의 판결을

하오나 다시금
당신 포도밭 꽃 피워 주시고
당신의 양 무리 우리 손 안에
함께 모이도록
주여 이 비참을 바꾸어 주소서

일어나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는 한국에 왔다. 파견식에서 우리는 큰 마음으로 신앙과 선교사업을 위해 우리의 피와 목숨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피와 목숨을 봉헌한다는 말은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 비극적인 현실을 긍정할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한다.

서원

우리는 그 때 당신께 드렸나이다.
제단의 제물로
우리 생명을

우리는 바랐나이다
조건없이 당신 것이기만을
봉헌하는 환희 속에서

그건 다만
한 날의 꿈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말의 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오라지 우리는
우리 서원으로
하느님 나라 꽃 피우기
원하였습니다

님께선 자주
당신 기쁨의 잔을 주셨나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하오나 오늘은
고통과 궁핍, 굴욕과 죽음으로
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워 주시오니

당신께 드린 우리 서원
충실히 지키도록
지금 우리 곁에 계시옵소서

노예의 운명이건
자유의 행복이건
당신 뜻만이 이루어지옵기를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그 참된 행복은 의심없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축복 가득한 제물이요 최상의 것이다. 예견하지 못하는 영혼의 상승이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인간의 힘도 필요하다. -가서 전하라- 이는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

내가 안다면

여기, 굴욕과 무력 가운데
다른 어느 곳보다도
당신 사랑이 내게 넘쳐 흘러움을
내가 안다면
또한 내 자신 당신 향해 아름답게 피어나
날마다 봉헌됨을 내가 안다면
고된 일 주옵소서. 무력함 주옵소서
치욕을 주옵소서
기도드리련마는...

당신께서 생명의 첫 순간부터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도
여기 나 묶여 있기에
유일한 목적인 당신을 찾지 못함을
내가 안다면
당신의 씨 뿌리는 손
축복으로 채워 주심을
내가 안다면
주여
당신 위해 이 사슬 끊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련마는...

그대 아시는 것 내가 안다면
내 기도 어렵지 않으려면...
그대 보시는 것 나도 본다면
남이여
그대 뜻만을 내 원하련만...
당신 마음 안에 이 몸 잠기어
내 존재 말없이 당신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갈망 가라앉고
오로지 당신 성령
내 안에서 기도하시옵기를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형태가 바뀌었다. 우리가 자유로
택하여 하느님의 뜻으로 여긴 수도생활은 불가능하게 되
었다. 감시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사명
감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불뛴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떠한 외
적 형식에 매이지 않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원하시는 대
로 당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님께서 사랑하시니

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나 사랑함보다 더 사랑하시니
당신 손에 나를 맡기웁니다
내게서 앗아가심도 내게 주심도
다만 사랑으로 하심이오니

내 스스로 바라는 그 이상으로
님께서 내가 티없이 아름답길 원하시오니
님의 영원한 계획
신뢰하며 따르웁니다
가난도 날 해치지 못하고
풍요함도 날 못 속이리니
둘 다 님의 사랑의 모습일 따름이오이다

님은 적을 막아주는 성벽
님은 내게, 신부로 치장하는
반지와 베일과 화관과 예복이시니
님은 내게 하찮은 미물에도 미치웁니다.

이 몸 어둠 속 걸어도 무섭지 않고
님 뵈옵지 못해도 겁나지 않사오니
당신 손에 나를 맡기웁니다
님께서 내 곁에 계시오니
님께서 나의 종말까지 나를 사랑하시오니

대화

영혼

여기 추방의 쓰라린 나날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아끼던 모든 것
깡그리 다 없어졌나이다
주님
당신께 슬피 탄식하나이다

후회함 없이
당신께 충실하고 싶나이다
하오나 이 몸은 한 날 약한 갈대
더욱이
당신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빗장과 문
모두 다 헐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여기 추방의 쓰라린 나날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아끼던 모든 것
깡그리 다 없어졌나이다
주님
당신께 슬피 탄식하나이다

주님

영혼아

너 무서워 떠는 자근 새야
내 손 안에서 안식을 누리거라
보아라 내 손가락 끝으로
너를 온전히 감싸주는 것을

내 사랑 바로 네 제방되고
내 성실 너의 성벽이다

온 우주를 지탱하는 나.
너는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 홀로 원수와 맞서게
버려둔다고 생각하느냐
영혼아
너 겁 많은 작은 새야
나를 믿어라
모든 것 잘 되리라

산중의 수용소 생화에서 해야 할 작업량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롭게 종교행사를 할 수 있다는 허락이 있었다. 우리들은 이에 따라 준비를 갖추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 밀과 포도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둘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지방은 밀농사를 짓지 않는데 섭리의 기적처럼 밀씨가 우리 손에 들어왔고, 산에서 따온 머루로 미사주를 만들었다.

성숙

적막을 안고
외 밭에 선 누런 밀이삭이
불어오는 산들바람으로
가볍게 나부꼈다.
사제의 거룩한 손이
그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켜 놓으리라
밀이삭이여
그대는 여름 햇볕에 마음껏 무르익으리라

가냘픈 넝쿨에 매달리어
흔들리는 포도송이
비 바람 찾아오고
서산 넘어 햇님이 잠들 때까지...
그리스도의 성혈이 되는
이 신비를 그대는 아는가
태양의 작열 속에서
그대는 단맛 가득히 무르익어라

영혼아, 그대는 설워마라
님의 따뜻한 손길이
풍파의 암흑 속으로 너를 데려왔으니
그 섭리의 뜻을 인식하여 쓰라린 고통 속에서
영혼아 깨끗이 무르익어라

최 명화 신부 옮김

우리가 만든 흙집에는 한 칸짜리 작은 성당이 있었다. 제대와 감실은 나무로 만들어 머루즙을 칠했는데 여기저기 벌레 먹은 구멍들이 오히려 예술적인 운치를 풍겼다. 우리는 벧짚자리에 쭈구리고 앉아 기도드렸다.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이런 피난처가 있어 우리는 참으로 행복했다. 이 성당을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처음엔 흰 종이에 <내게로 오라>고 써 붙였다. 그 방을 계속 성당으로 쓸 수 있을는지, 또 밀과 포도주를 얻을 수 있을는지 걱정이 외자 <주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덧붙였다. 나중에 수용소 생활이 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고 써 붙였다. 정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다. 우리의 온갖 소망과 체념과 인간적인 저항 등 정말 모든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거기서 했던가! 얼마나 큰 감동으로 종교적 예식을 행했던가! 병자성사와 장례식도 바로 그 성당에서 거행되었고 성탄 때에는 성당 한 구석에다 토속적인 멋을 살려 돌과 나무동치로 구유를 꾸몄었다.

잊을 수 없는 우리의 그 하느님의 집!
또 그 성당은 붙어 있는 양쪽 방문을 열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었고, 여름철에는 골짜기의 들꽃들도 볼 수 있었다. 그 성당에는 이복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감실이 숨어 있었다.

위로

비참한 감방에도 남은 함께 계시어
우리네 삶의 고통을 같이 나누십니다
우리와 함께 노예의 고역 치르시며
그 사랑, 가난의 표시 지니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피로와 고달픔도 같이 느끼십니다
찢기우고 굶주리고
향수의 상처 깊은 우리들을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추루해지고 별에 까맣게 탄 자들을
형제라 자매라 친구라 부르시며
마음담아 자애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이 너희게 한 것은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실상은 너희 안에서 내가 쫓겨나고 학대받노라
십자가 밑에서 걷는 자는 바로 나로다
구원 사업을 완성할 그 때까지
고통의 밤 걷는 나의 지체들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우리가 알았다면
이 골짜기로 추방되지 않았을런가
우리는 구원의 고통 위한 그분의 몸...
오, 귀하고 복된 추방의 시간이여

그래도

그래도

님께선 우리 가운데 계시웁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제물을
거룩하신 당신 자신으로 갚아 주시오니...

날마다 식탁에서 우리 하나 되웁고
굶주림과 비참과 걱정에서
희생의 힘 우리를 새롭게 피어나게 하시니...

힘겨운 노역 숨막히는 무더위도
님의 누길 앞에선 환희 가시고
평온하고 서늘한 저녁 주시어
기진한 기도자들 집으로 인도하시오니...

죽음 그늘진 시간에도
구세주이신 주님, 곁에 계심 이웁고
내 생명의 나날
축복 가득히 맺어 주시오리니...

님이여
뼈저린 고통 속에서도
이 그윽한 행복 맛보게 하시는 한
우리는 허약하게 한탄해서도 아니되오며
암야의 고통도 축제가 되웁니다

일년이 지났다. 밭일을 하는 동안 그 몇 달이 기진맥진한 우리에게서 말할 수 없이 무한정 길게 느껴졌다. 해마다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두 차례 김 매는 기간은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때였다. 우리는 날마다 종일토록 꾸부리거나 무릎을 꿇고 김을 댔다. 옥수수, 기장, 콩, 감자를 하나씩 손으로 잡고, 자갈투성이의 밭을 고루고루 갈고 손질해야 했다. 장마 때에도 아무 장비 없이 땀 속까지 적셔가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몸에 배지 않을 기후와 굶주림과 간수들의 학대로 일은 갈수록 더 고통스럽게 되었다.

가을

봄 지나고 여름도 지나
이제 가을 깊어진 들녘
황금 물결 넘실거리고
부지런히 낫질하는 소리 울린다.

우리는 땅 갈아 씨 뿌렸고
무릎으로 기면서 김 매었다
비 바람에 찢기우고 얼어터지고
뼈 속까지 불별에 익었었다

남이 지워준 멍에 메고
감시병의 사나운 고함소리 들어가며 중노동을 했다
모욕과 경멸에 이를 깨물며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으니
“주여 우리에게 자우 주소서”

봄 지나고 여름도 지나
이제 가을 깊어진 들녘
주님의 축복으로
곡식은 이삭마다 영글었사운데
오 주님
언제 전환이 옵니까

추수 - 하느님의 창고에 쌓는 추수

수용소의 인원 50명 중에서 1950년 8월까지 1년 동안 6명이 산 위에 만든 묘지에 묻혔다. 그 다음 1년 후에는 12명이 죽었고 우리가 수용소를 떠날 때에는 17명이 죽었다. 처음에는 무덤 앞에 나무 십자가를 세웠는데 폭격이 심해지자 비행기의 표적이 될까봐 다 치우라고 명령을 했다. 우리는 이름을 쓴 막대기를 대신 꽂을 수 밖에 없었다.

추수

메마른 땅덩어리
그러나 그 곳에서부터
도도한 대하와도 같이
님의 축복은 흘러나온다
쓰라린 강제노동 무거운 멍에도
님의 자비심을 막지는 못하리

님은 싹이 트게 하셨고
찬란한 햇빛 그리고 비 바람에
그 싹이 자라게 하셨으니
우리는 님의 자녀임을
깊이 깊이 그리고 깨끗이 아로새길 수 있었다

비탈길이 내어준 가장 좋은 추수
누렁고 묵직한
여성 곡식단
죽음으로 묶여진 여섯 곡식단
어느 이삭에도 빈틈이 없도다

우리 님께 바쳐드릴
십분지 일 세납
여기 나나났도다
여섯 개 무덤

님이여
우리가 님께 바쳐들이시도록
보내신 죽음으로써
받아 주옵소서

최 명화 신부 옮김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왕이시여
우리는 주께 드렸나이다
일곱 날의 제사
일곱 날의 고통 그 희생을
충실하게 님 따라 갈바리아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나이다

1950년 10월이 되었다. 그 때는 유엔군이 한국 동란에 참전하여 북쪽으로 진격해왔다. 전선이 수용서 근처로 가까워질 때 우리는 강제로 북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압록강을 건너 만포로 가고 또 중국 땅 만주까지 갔다가 다시 국경을 넘어 만포로 가고 또 중국 땅 만주까지 갔다가 다시 국경을 넘어 되돌아 왔었다. 그 7일 동안의 피난길에서 우리는 정말 쓰라린 고통을 혹독하게 겪었다. 우리의 감시병들은 우리가 미군 포로라고 거짓말을 퍼뜨려 주민들이 증오하게 했다. 그 피난 끝 무렵에 우리는 한국인 포로들(납치인사들)을 만났었다. 그 사람들은 서울서부터 평양, 만포에 이르는 수주간의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대열에서 처지는 사람은 그냥 없어져 버렸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기뻐다. 바로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시작되는 전날 밤 12시에 다시 돌아온 사실이 하느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나라 한국 - 우리가 살고 묻히고 싶은 -을 위해 일하게 해 주시리라는 희망의 표시로 여겨졌다.

그리스도 왕이시여
님께서 보셨나이다
그들이 우리를 죄수처럼 끌고가는 것을
주림과 밤 추위에 떨며
산골짜기 마을 지나 짐승처럼 쫓기는 것을

그리스도 왕이시여
당신은 정년 들으셨나이다
철커덕, 옥문 닫히는 소리
길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신음소리
마음 짓밟아 증오 자아내는
그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그리스도 왕이시여
주님은 그저 보고만 계셨나이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쫓겨 나가는 것을
쫓기는 발 걸음마다 심장의 피 흘리며
바위투성이 이 한국의 해안 떠나는 것을

그리스도 왕이시여
그러나 이제 당신은 일어나셨나이다
님께서 이제 당신은 원치 않으셨으니
이 날 당신 축일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 왕이시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영원한 사랑과 충성을 남께 드리웁니다
아직 우리는 묶여 있사오나 - 새벽이 오면
그리스도 왕이시여
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오리다

북쪽으로 피난 갔다 돌아온 후 우리는 두 달 반 동안 감옥 굴에서 지내야 했다. 땅을 파서 생나무 가지를 위를 덮은 비좁은 땅 굴 속에 우리는 짐승 떼처럼 갇혀 꼼짝도 못하고 들어앉아 있어야 했다. 혹독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씻는 일이나 화장실에 가는 가장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요구도 해결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니 종교의식은 더더구나 불가능했다. 공습은 계속되어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다. 땅을 파서 나무와 짚으로 엮어 만든 그 토굴은 항상 문을 잠궈두었는데 한번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 차마 볼 수 없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악독한 간수들, 그것은 완전히 극도의 무자비와 무법 상태였다.

1950년 대림절

깊은 구렁 속에서 부르짖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감옥살이의 비참 속에

한 밤 중 가위 놀려 외치나이다
낮도 빛 없이 캄캄하기에
비좁고 숨막히는 토굴 속에서
열 네 시간씩 계속되는 밤의 고통...

투굴 속 우리에게
겨울 해도 눈부셔라
불처럼 따갑게 눈 아파서
동굴 속 부엉이인 양
문틈으로 겨우 내다보나이다

여기선 웃음이 죽어갑니다
여기선 노래 또한 질식 됩니다
다만 속삭이는 기도만이
가까스로
당신 현존을
지탱시켜 줄 따름이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가련한 짐승떼거리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주시라고
착한 목자 당신만을 고대합니다

보옵소서
부은 몸뚱이 무거운 짐이오며
얼어터진 발가락하며
뼈만 남고 핏기 없고 더러움에 찌들어
장차 어찌 되겠나이까

기진하여 병들어 신음하며
날마다 당신께 우리 목숨 바치옵니다
이름없는 무덤들만
우리들이 끌려가는 길을 따라 생겨납니다.

대림절이옵니다
가장 어두운 대림절, 역사의 대림절
오 다윗의 열쇠이신 그리스도여 오소서
오시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소서

1950년 성탄절

누추한 땅굴 그 속으로
맞이한 크리스마스
온갖 화려함도
가시어 버린 크리스마스
오직 이 사랑
우리에게 준 자
당신 까닭임을
굳센 믿음만이 깨닫는도다

더할 수 없이 픽박받는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구세주의 사랑이여
우리를 적셔 주는 이슬비마냥
내리는 크리스마스의 은총
그것은 다만
우리의 복스러운 희망이로다

여기 외양간에서 도둑마냥
남이 볼세라 가슴 조이며
지내는 크리스마스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의 신비는
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더 불꽃으로 퍼지게 하는도다

요셉 성인께서는
겨우 외양간을 하나 찾아 내시니
여기 우리네 토굴마냥 컴컴한 외양간
바박에 널려 있는 더러운 벧짚이라도
정성스레 긁어모아 자리를 마련하시니

성탄절이 되었다. 가련하고 비참한 처지에서도 우리는 도둑의 소굴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성탄 축하식을 가졌다. 아름답고 사랑스런 옛날 성탄 노래를 낮은 소리로 부르고 성탄시를 읊었다. 끝으로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신부님을 둘러싸고 쥐도 새도 모르게 성탄미사를 드렸다. 거룩한 성탄미사까지 드릴 수 있었으니 참으로 성탄절이었다. 우리 생애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뜻깊은 성탄절이었다.

새해 첫날

비관론자

지난해처럼
그러게 어둡게 지난간 해는 정말 없었고
금년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시작된 해도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
천대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암흑으로 캄캄하게 둘러싸여서
빛의 증인인 우리들 탄식합니다

우리네 삶의 귀한 시간들
고달픈 기다림 속에 사라집니다
이러한 비참 속에서
우리의 몸과 정신 질식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생명의 힘
잔에 따라논 술처럼 없어질 것이니
창백한 주정꾼인 죽음이
곧 그 잔 입에 대고 마실 것입니다

비참 속에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하느님 용서하소서
당신이 주신 선물, 이 새해 겁내는 것을

해가 바뀌었으나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관솔볼과 그
연기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했다. 우리는 지난 일에 대해
서, 우리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고곡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앞날이 어찌될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
다. 어떤이들은 절망의 밑바닥에 빠져 심한 우울증에 사
로잡히기도 하고 반대로 계속 솟구치는 샘처럼 그래도 낙
천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더러는 있었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닻은 눈감고 믿는 희망,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하느님께 대한 끝없는 신뢰였다.

낙관론자

지난 해처럼
그렇게 어둡게 지나간 해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센 희망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마냥
어둠 속에서 눈 감고
하늘 아빠 품 안에서 고요히
모든 것 만족하오니

지치고 싫증나는 기다림으로 시간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한 마디 하느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자유거나 속박이거나 삶이나 죽음이거나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우리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은 다 복되오니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고통은 틀림없이 지나가는 것'우리는 희망 안에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느님께서 자유주시리라고

압제받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포로의 신세는
누구나 견딜 수 없으니 사람은 무언가 일을 해야 하고 결
실을 맺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십자
가를 한 몫 나누도록 우리를 당신 고통으로 부르셨다.

당신의 십자가는 나의 것

고뇌로 점철된 어두운 시간입니다
쓰라린 고통이 방울방울 흘러넘치는 밤입니다
강제로 묶여서 손끝 하나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희망은 쓰레기마냥 내던져진 절망입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묵묵히 투쟁합니다
죽음보다 더 쓰라린 생활입니다

이 잔이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잔입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남께서 지고 가시다 넘어지신
그 십자가이옵니까

오 주님
더 이상 탄식하지 않으렵니다
떨고 있는 내 마음
상관하지 않으렵니다
다만 원하옵느니
당신의 키레네 시몬 되기를 ...

진정 남의 십자가는 나의 것
내 것은 남의 것이옵기에

항상 기쁘게 하느님께 신뢰하는 낙천주의자들이라도 어두움의 시간을 피할 수 없다. 어두운 시기, 그것은 아무래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리라. 어두움을 통해 더 밝은 빛으로 인도되는 것이기에.

어두운 시간

주여 당신만은 아시나이다
이 어두운 시간을
내 용기는 늙처럼 가라앉나이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심히 아프고
스며나오는 피처럼
그 상처 인하여 기진하나이다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기쁨은 회색으로 바뀌고
당신의 강직한 의지는
날카로운 단두대의 칼이 되어
내 머리 위에서 번득이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쓰라린 투쟁 중에 주저하지 않도록
당신 사랑 힘입어 인내 할 수 있도록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내 자신의 반항, 무슨 소용이 있사오리까
마음 깊숙이 느끼옵은
당신의 뜻, 가장 쓰라린 예물이오나
사랑의 환희로
이 몸 인도하심이라고

10월 말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퇴각하기 시작하여
우리 옥사덕 수용소는 위험지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
리는 두 패로 나뉘어 1951년 1월 15일과 16일에 옥사덕
으로 돌아왔다. 꿈쩍도 못하고 토굴 감옥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일하러 돌아다닐 수 있는
산골짜기 우리의 수용소를 얼마나 그리워했었는지! 그리
고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우리가 추수하여 비상용으로 끓
아둔 감자와 곡식을 늘 생각했었는데... 돌아오니 피난민
들이 수용소를 털어 약탈 해가버렸으며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가 제발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던 소장을 다
시 보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2년이나 더 그 소장 말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혹독하게 당했다.
그 소장은 거의 광적인 증오로 우리를 괴롭혔다.

고요 속에

이 몸 고요히 있고 싶나이다
마음 속 깊은 고요 가운데
하느님의 자유 누리며
몸과 마음 노예의 쇠사슬로
피투성이 되어 찢길지라도...

이 몸 고요히 있고 싶나이다
마음 속 깊은 고요 가운데
이 마음에 주님 거하시오니
불의가 하늘까지 치솟아
내 내장이 혐오와 전율로 뒤틀릴지라도...

이 몸 고요히 있고 싶나이다
마음 속 깊은 고요 가운데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
온갖 학대 받아도
오로지 하나의 문 통해서만
모든 괴로움 내게 오나니
그 문은 바로 내 하느님...

이 몸 고요히 있고 싶나이다
마음 속 깊은 고요 가운데
님의 힘으로
님께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비참과 고뇌, 그 깊이만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에...

하느님의 사제들

하느님의 사제들이여
노예의 멍에에 짓눌려 계시는 그대들을
우리는 안타까운 맘으로 바라봅니다
무거운 짐 지느라 등 굽어지신 사제들
지친 몸 발 둔덕에서 숨 돌리시는 사제들
숲 속에서 힘겹게 숨 굽는 사제들
형편없이 늙고 찌들리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되셨습니다
냄새나는 뒷간을 치시는 사제들
그들은 당신들을 모욕하기 위해
온갖 피를 짜냅니다
하느님의 사제들이시여
노예의 멍에에 짓눌리시는 그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수용소 소장은 특히 신부님들에게 지독하게 굴었다. 괴롭히고 모욕하는 것으로 특별한 쾌감을 느끼며 즐기는 것 같았다. 너무도 짓눌리고 당해서 많은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영신적으로 파국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사제로서 사제답게 생활의 모범을 보이셔야 했다. 평신도인 우리들은 사제를 그리스도처럼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오나 하느님의 사제들이시여
우리는 더 더욱 깊은 존경을 드리오니
못 투성이가 된 그대들의 축성된 손에
축복 주시는 그대들의 입에
지치고 등 굽어진 초라한 모습에
농의 압제도 결코 빼앗지 못하는
죄를 사하는 하느님의 권위
그 보이지 않는 힘에...
하느님의 사제들이시여
우리는 진정 그대들에게
한없는 존경을 드리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제들이시여
잊지마소서
모든 행위에는 빠짐없이 심판이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당신들을 믿고 따르오니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주소서
그 거울 비록 약한 인간성 지니오나
순수하고 고귀한 기쁨으로
주님의 수난 길을 걷고 계시오니
우리는 보나이다
당신들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사제들이시여
결코 잊기 마소서
모든 행위에는 빠짐없이 심판이 따르고 있음을

크리스찬이라 해도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할 때, 그 미움과 불의에 대해서, 마음으로 초연하고 온전히 초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인내와 힘이 필요하다.

원수

원수에게 정의를 주기 위하여
그의 아름다운 점을 “덕”이라 일컬으면서
그를 또한 미쁘게 여기는 것은
어진 사람다운 베품이어라

멸시와 증오, 그리고 조롱을 받으면서
마음 속에 조그마한 원한도 없이
천주님의 성의만을 의지하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 신자의 맛스런 행복이어라

원수, 그 안에서 형제를 찾고
그에 대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그들에게
강복 있어지기를 비는 것은 오직
신비에 젖은 순결한 사랑이어라

포로생활을 하며 비참과 곤궁 속에서 주림에 시달리고 또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겪에 되는 심리적인 고통들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고통들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것이다. 그리고 또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기 쉽다는 것을.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추악함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귀한 그리스찬 공동체를 이루고 키워 나가는 데 얼마나 큰 힘과 정신력이 필요한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절박하고 극한적인 상황에서 사제들과 수사들과 수녀들은 공동체를 형성했으니 이제 외적으로는 서로 헤어져 떨어져 있다해도 그 공동체는 내적으로 결코 해체되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

서로가 사랑으로 이어져 있으면
공동체는 하나의 행복한 수레이지만
음울하게 이기심의 틈바구니 벌어질수록
공동체는 등짐이 되어 무겁게 짓누릅니다

자애심의 싹 조용히 죽여 나가면
공동체는 가뿔 넘쳐서 성장하지만
제멋대로 방종하게 흘러간다면
공동체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공동체는
당신을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
드높은 빛으로 환호 속에 인도하기도 하지만
냉혹한 비판으로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당신 자신을 극복하는 희생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하느님께로 이끌러 가고 있는가를
또한 얼마나
은밀하게 감추어진 당신의 죄악들이
공동체의 생명력을 잠식하고 있는가를...

제발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과 나에게 달렸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지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택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실망

사심없이 사심없이 주는 온전한 희생
그 보답없어 괴로워하신다면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값음을 바라서 베푸는 일은
이교도들도 다들 잘 하도다“

당신의 마음 속 한 구석에
쓰고 아린 감정의 불꽃이
계속 자리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스승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멀리 있습니다.

호의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마음의 쓰라림을 넘어서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아
친절을 베푸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마음 속에
하늘 기쁨 강물되어 흐를 것입니다

자유

침다운 내적 자유가 내 안에 없다면
자유를 누린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집에 사로잡힌 마음의 사슬은
그 누가 끊어 줄 수 있으랴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무릎 꿇어 땅바닥 먼지에까지
이마를 조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당신 말씀에 귀 어두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오니...

우리는 오랫동안 당국과 수용소 경찰들에게 무죄를 주장하고 재판도 없이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에 반발하는 태도를 취했었다. 그러나 차차 이런 태도로는 참으로 귀한 고통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고통이 하느님의 뜻임을 긍정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여려고 매일의 생활에서 힘써 노력하였다. 그렇게 하는 동안 바로 거기에서 힘이 샘솟고 풍요한 결실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되었다.

마음 안에 응어리 남겨둠 없이
사랑의 자유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준다면
이 쓰라린 노여생활의 속박에서
주님 우리를 풀어 주시렵니까

봄철의 걱정

여기 봄 동산
생명의 환희 충만한 기쁨되어
여기저기 어린 새싹들 터져나오고
초록으로 뒤덮인 산비탈 가득히
꽃들은 찬란하게 피어난다

씨앗은 어둡고 단단한 땅 밀치고
빛과 밝음으로 솟아나오니
날알마다 힘차게 부풀어 오르는 희망
생명의 힘 충만한 거센 파도다

포도덩굴은 울타리와 밭 둔덕에서
새순이 파릇파릇 돌아나는데
포도꽃 향내 그 푸르름 속에서
내 마음 괴로워 눈물 흐른다

미풍에 흔들리는
이 포도덩굴 옆에
밀 이삭들도 함께 자라고 있다면...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길러 주도록

당신은
모든 생명력의 원천이시고
당신은 고통의 가시밭 길에서
우리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
그런데
주님 당신은 정녕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1950년 가을, 북쪽으로 피난가기 전에 우리는 밭에다 밀을 심었다. 피난길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수종에는 밀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밭에 심어 둔 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밀이 자라지 않았으므로, 소장은 봄이 되니 그 밀밭을 갈고 옥수수를 심으라고 명령을 했다. 우리는 빌고 애걸하였으나 소장은 막무가내였다. 그것은 참으로 지독한 타격이었으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밭을 가는 수사님은 아주 조심스레 쟁기질을 하여 여기저기 밀줄기를 남겼다. 그래서 다행하게도 한 대야 정도 밀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이것을 알고 밀을 내 놓으라고 명령을 했다. 밀을 내어 주는 것은 미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참말 사정사정하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였다. 마지못해 소장은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어 밀을 압수해가지 않았다. 우리는 그 밀로 제병을 만들어 1년 동안 아주 아껴 썼으며 또 다음 해를 위해 밀씨로 남겨 두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는지, 우리의 감실을 계속 모실 수 있을는지 항상 불안과 걱정 속에서 지냈다.

신뢰

정년 그렇게 된다해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아침 이슬마냥 사라진다 해도
내 마음은 고요히 평화 중에 있으리다
당신을 신뢰하고 있음이기에

정년 그렇게 된다해도
원수들이 증오와 모욕으로
우리 생명을 온통 짓이겨 으깨어도
내게는 남께 대한 신뢰가 든든하오니
오 하느님 이 몸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정년 그렇게 된다 해도
비록님께서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신다 해도
이 모든 인간적인 것 넘어서
언제고 님의 사랑 내게 넘쳐 흐르오니
님께서 이 몸 사랑하고 계심을 밝히 알고 있나이다

우리는 여름 동안 내내 밀 때문에 가슴 졸였다. 미사를
영영 드리지 못하게 될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라도 예상하
지 않을 수 없었다.

달혀진 문

골짜기 너머로 여기저기 포연이 하늘로 치솟고
포탄의 굉음이 바람결 타고 들립니다
전투기들은 떼지어 계곡을 질주해 가면서
기염 토하며 당당하게 죽음의 무게를 실어 나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헤어려 봅니다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오! 우리는 철부지 아이들
바닷가 모래밭에 쪼그리고 앉아
조개껍질 귀에다 대고
지겹도록 듣고 또 듣고
한없이 지껄이는 아이들
바다가 정말 무슨 얘기하는가
마냥 묻고 얘기해도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폐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는 당신께서 인도하심을 압니다
문은 정녕 열리고 마음 자유로우리니
불안과 긴장 속에 견디는 이 시간의 흐름
신적 생명의 영광으로
이 고독한 파도가 우리를
영원한 시간, 그 기슭에
정녕코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 속에서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되어 살았으므로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도무지 깜깜했다. 우리가 있던
산골짜기의 제일 높은 꼭대기 밭에서는 북쪽으로 멀리,
압록강 지류의 골짜기가 보였는데 그 지류에는 국도와 철
도가 있어 매일 폭격의 대상이 되었었다.

우리는 우리가 북쪽으로 피난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실
에서 국군이 후퇴했으리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자주 멀리
서 또 가까이서 총소리가 들려와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했다.

죽음

사랑스럽고 충실한 벗처럼
죽음은 우리 가운데 있다
죽음은 사뿐 사뿐 조용히 걷는다
누구를 생각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죽음이 먼저 고향으로 친절하게 데려가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이들이라 생각지 말라
그대 자신이 벌써
얼음같이 찬 입김을 느끼지 않는가

죽음은 고요하고 깊숙한 눈길로
이 사람 저 삶 눈여겨 살핀다
하느님의 영원한 창조 계획에 누가
적당한지 숙고나 하듯이

죽음이 검은 눈 주춧돌을 찾는다
어느 돌도 그에게는 낯설지 않으니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하느님 그 현명한 석수의 손에
쓸모있기를

1951년과 1952년은 제일 건디기 어려운 해였다. 죽는 사람이 많아져 한 달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 그런 상태라 우리가 이 산골짜기에 갇힌 것은 조만간 우리가 세상이 모르게 죽기를 바란 것이라 생각했다.

매일의 노동은 정말 힘겨웠다. 집을 짓고, 바위투성이 산비탈에다 길을 닦고, 원시적인 도구로 밭을 일구었다. 매일 배당된 14시간의 노동 외에도 소위 자원봉사라는 시간 외 노력동원이 있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땀나무 준비하고 빨래하고 주방일을 해야 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 땀감으로 큰 나무동치나 나무 다발을 등에 메고 질질 끌고 오는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이었다. 누가 많이 아프거나 죽게 되면 정말 형편은 너무 딱했다. 우리는 겨우 바닥에 숨 저고리를 깔아주거나 다 낡은 더러운 담요와 오바를 덮어주고 길레 안에 땀짙을 넣어 베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온통 온몸이 통통 부어오르고 숨이 가빠 괴로워하며, 계속 심하게 설사를 하는 병자들에게 부드러운 이부자리나 깨끗한 내복 그리고 환자용 음식이나 필요한 간하를 우리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었다. 우리의 의사수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했지만 정작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손에 넣을 수 없었다. 또한 사정이 어떨든 우리는 밭에 일하러 나가야 했으므로, 일하는 동안 내내 우리가 다시 병든 형제를 저녁때 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다.

무덤이 줄지어 생겨났다. 장례식은 점점 초라해졌다. 그리고 일 때문에 허락을 못 받아서, 병이 들거나 너무 약해서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금년에는 누가 죽겠는가? 몇 명이나 죽었을까? 간수들은 작업계획을 위한 통계 때문에 이런 말을 거침없이 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무심코 서로 쳐다 보았다.

- 다음은 누구? 네 차례? 네 차례? - 대부분 다음 차례인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때만다 우리는 죽기까지 충실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며 괴로워 궁핍과 절망 등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 불렀다.

“그리스도 나의 왕이여
오직 당신에게
죽기까지 충실하리라.”

죽음의 준비

무겁게 비틀거리며 상여의 무리
산비탈 올라갑니다
숲 가까이 자갈 많은 잔디밭에서
수사님들 무덤을 깊게 팝니다
벌써 열 두 번째의 무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처음에는 우리들이 관을 떠냈으나
이제는 모두 다 너무 찼진하여
불쌍한 암소 억지로 몰아
우리 대신 관을 끌게 합니다

상여 뒤엔 허리 굽어 지팡이 짚고
찢어진 옷에 더러운 수염
맨발로 기운없이 따라가는 한 줌의 사람들
-이미 죽음에 봉헌된 사람들-
옆에는 간수들이 무관심하게 서 있고

우리는 말없이 새 무덤을 바라봅니다
흙덩이는 무심하게 무덤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 불꽃 피어나듯이
우리의 찬미가 하늘 향해 타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안에 죽음을 감지하지만
자랑스러이 우리의 소명을 함께 의식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죽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리스도 위한 죽음이기에-

1952년 가을 수용소 소장은 밭 한 태기도 밭을 심도록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밭이 필요했다. 소장은 이것을 눈치 채고 이 금지령으로 우리의 목을 조르려 했다. 우리의 이른바 종교자유를 공격으로 막을 수 없었으니까, 추운 곳이라 9월 15일 전에 파종을 해야 밀씨가 얼어 죽지 않으므로 우린 서둘러 궁리를 했다. 우리는 소장이 내년에는 목혀 두겠다고 말한 옥수수밭에다 여기저기 조금씩 밭을 심었다. 항상 우리를 몹시 괴롭혔던 한 간수가 이것을 보았는데 이번만은 모르는 척 눈감아 주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성체의 희망

밭갈이하고 저녁 늦게 돌아온 우리
또한 우리의 밀씨도 뿌리었노라
말없이 불안한 행복감을 안고
좁다란 밭두렁을 오락가락하였노라

오르락내리락 옥수수밭의 열 두렁은
우리 희망의 말없는 무덤이라
얼마 후에 그 열 두렁은
우리의 희망을 빛으로 옮겨 주리라

해는 이미 서산에 졌건만
강 건너 저편 산에서는
희미한 저녁놀이 감겨 들어가며
주의 떡이 될 밀 이삭과 더불어
우리의 밭을 향해 인사하노라

저녁의 태양열이 식어갈 무렵
우리 생명의 담보인 두렁과 씨앗 위에
그리고 밭 가에 선 수직군 위에
사제 한 분이 나지막한 소리로
강복을 빌고 있노라

숫가마에서

수사님들 나는 보았습니다.
얼음 깔린 깊은 산골짜기에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는 그대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슬그머니 무겁게 넘어가는 나무소리
그때마다 가슴 조이며
그대들의 생명을 걱정하였습니다

수사님들 나는 보았습니다
묵직한 통나무를 운반하는
그대들의 끈질긴 용기를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글이글 숫가마의
불을 붙게 하는
그대들의 능숙한 솜씨를 보았습니다

겨울철마다 신부와 수사들은 숲을 구워야 했다.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이라 제발 숲 굽는 일을 시키지 말아 달라고 청했으나 그들은 숲을 구워 팔아 고기와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고기나 기름을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다. 1952년 겨울 또 험한 산골짜기로 가서 숲을 구웠다. 큰 나무를 베는 일이나 그 나무를 운반하는 일은 항상 위험하기 짝이 없었고 게다가 겨우 걸레로 만든 발싸개와 짚신을 신고 일했던 것이다. 그 겨울에는 수녀인 필자도 숫가마니를 운반하는 그룹에 끼어 일했다.

나는 보았습니다
불가마 곁에 비지땀에 젖어 있는 그대들을
그리고 부지직 부지직 타고 있는 숲을
끌어내는 광경을...
빠지직 거리는 얼음 위에 꺼져가는 장작불은
씨익 하고 소리 내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덮인 서리는
사각사각 소리 내었습니다

그것은 뺨골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려오는 그대들의 음성은
명랑도 하였습니다
미소 띤 입술에서 흘러오는
그대들의 소리 “땀다 성공했어”
이것뿐이었습니다

수사님들, 그것은 종노릇이 아니고
노역이 아닙니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대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스런 것입니다

수사님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위대함을
신앙 속에서 그대들은
종노동 하나하나가 천주의 나라 건설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가치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지금의 우리 생활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희생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전한 우리 본성이 요구하는 실제적 활동에 대해 이 앓을 매일 매 시간 지켜나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질문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완전히 잊혀진 존재들인가
쓸모가 없어서 내다버린
쓰레기란 말인가

햇볕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눈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이 고통들 무의미할 뿐인가

대답문 그대는 보았는가
겨우내 여기저기 산 기슭마다
까마귀나 노루의 발자국만 보이며
뒤덮여 반짝이던 쓸모없는 눈들을

그래도 이른 봄별에
진기하게 새 생명이 시작되니
세상에서 아득한 이 골짜구니
어느덧 남몰래 눈은 녹아

쿨쿨거리며 돌 틈새마다
작은 샘 솟아나오고
언덕 넘어 비탈 아래로
예서 제서 실개천 급히 흐르고

시내 도랑 넘치게 흙탕물
요란스레 거품 일고 모여들어
절벽 위로 팔팔 미친 듯
골짜구니 아래로 흘러내리어

흐름은 파도 넘실거리며
이제 큰 강이 되어
커다란 힘으로 불어나는 것을
이토록 큰 힘 이룬 것
작은 샘 하나한 모인 것이 아닙니까

희생은 참으로 위대한 것, 그리스도의 희생과 인간의 희생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들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 - 기념예식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깊은 광명을 주었다. 바로 뒤에 죽음이 서 있는 듯 싶은 그 신부님께서 마음 준비하시고 미사를 드리실 때, 당신 자신이 온전히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정말 느꼈다.

사제서품 기념 (은경축)

그것은 아마 어제의 일이었나
내 안에 은총이 가득 넘쳐 흐르던 것
흠으로 빛어진 내 몸 안에
영원한 사제직이 씩으로 움트던 것
그 때 젊은 내 손 떨렸었지
오! 위대하신 하느님
순수하고 깨끗한 생명의 빵
주린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으니

이제 운명이 뒤바뀌어
이 몸 한 조각 빵이옵니다
님께서 손수 저를 변화시키셨나니
신비 가득한 사제이신 하느님
- 이는 내 몸 너희 위해 주노니
끓주린 너희 모두 받아먹어라 -
너희게 생명 흘러넘치도록
나의 희생 제물 그 샘에서

부활

주님
눈부신 그 빛살을
어느 누가 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무덤 벽을 깨뜨리고
새벽의 미명을 쫓아내는
그 빛나는 광채를

무덤이라구요? 문은 활짝 열리어
하얀 빛살 강물되어 흐릅니다.
그 빛살 거룩한 말씀
대성전으로부터의 길을 준비합니다

1953년 부활절 우리는 모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유행성 독감이 퍼져 모두 다 눕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허약해져서 꼭 필요한 일을 교대로 하는데도 힘에 겨웠다. 그러지만 간수들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 봄철의 농사일을 시작해야 했으니 정말 절망상태였다. 우리는 가까스로 안간힘을 써서 겨우 부활의 신비에 우리 정신을 모을 수 있을 뿐이었다.

산산이 부서지신 그 몸
강건한 모습으로 새로 살아오시어
승리자답게 그 상흔 보이시니
옛 상처는 눈부신 광채
찬미하나이다 주 그리스도여
온갖 압제 이기신 당신께
영광드리나이다 주 그리스도여
넘치는 희망으로 길 건너는
그 기쁨 전해 주신 당신께

주님
당신 향해 환호하고 싶나이다
내 하느님
하오나 이 몸은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있나이다
쓰라린 죽음의 고뇌 속에서
보소서 이 몸은 아직도 짓눌려 있으니
노예생활의 무서운 고역
내 상처는 여전히 피 흐르니
끝없이 긴 수난의 상처

하오나 내 죽음의 고통에도
부활의 빛이 넘쳐 비치오니
정녕 주께서는 당신 부활로
죽음과 고통을 정복하셨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 그리스도여
온갖 압제를 쳐 이기신 당신께
영광드리나이다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주님
부활의 복된 길
충실하게 전하신 당신께

얼마 후에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시찰단이 와서 사망자와 생존자를 조사했다. 그들도 우리 수용소의 높은 사망률에 놀라는 모양이었다. 급식량은 늘고 고기와 기름도 받게 되었으며 약도 받게 되고 약한 사람들은 중노동에서 면제되고 우리는 또 새 옷도 받았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지시대로 일은 하지만 감시병이 발에 까지 따라오지는 않게 되었다. 제일 반가운 일은 다른 소장이 온 것이었다. 새 소장도 물론 자기네 정부의 충성분자였지만 그래도 바탕이 선량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인간대접을 해 주었다. 그 영향으로 부하들도 차차 악질적인 행동을 그만 두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좋은 종말의 시작이라고 추측했다.

희망

남몰래 피어나는 제비꽃처럼
우리네 희망 수줍게 살며시 깨어납니다
귓속말로 소곤소곤 고요하게
마음놓고 숨김없이 말하며
희망은 입에서 입으로 피어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일합니다
배고픔도 가시고 간수의 학대도
이제는 그쳤습니다
기운 생겨 몸도 곧추서고
눈빛도 기쁨으로 힘이 납니다

돌투성이 메마른 땅을
마땅히 해야 할 일 일마냥
우리는 같고 씨 뿌립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수확을 축복으로 주고 싶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인지
그 힘한 빛살 믿기 어려우나
그래도 신뢰 가득히 뜨겁게 갈망합니다
하느님께서 강제노역을 끝내 주시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자유 주소서
온 세상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이여
우리를 당신 종 되게 하소서
영원한 추수 위해서
오로지 당신 위해서만
같고 심고 씨 뿌리게 하소서

몇 달이 지났다. 1953년 8월 초순, 우리는 주위를 살펴보며 휴전이 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곧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오리라고 큰 희망을 걸었으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감시병들도 차츰 자신을 되찾고 다시금 독재자가 되었다. 겨울철이 되어 11월 14일부터 다시 숲 굽는 일을 위해 길을 닦아야 했으므로 우리의 희망은 절망으로 굴러 떨어져버렸다.

굳세거라

아련하게 향내 풍기던
숨은 제비꽃 시들어 버리니
그 향기 그저 잠시만
달콤하게 대기를 가득 채웠을 뿐...

전쟁의 소요 잠잠해지고
피 흘리던 불행도 다 지나갔으나
추방된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는 더 멀어졌도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제보다 더한 어둠에 갇혀 있으니
어디서도 구원을 약속하는
밝은 빛살 하나 들어오지 않도다

그래도 굳세거라 내 마음아 평온하거라
끈질긴 용기로 신뢰하거라
네 하느님의 뜻은
암흑 속에서도 잘 인도하시오니

하느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선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입니까. 추방생활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당신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항상 가라앉은 흉탕물을 휘젓듯 우리 속에 불안을 일게 했고 하느님의 뜻이 최상의 것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했다. 우리는 수용소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의 일을 오로지 하느님의 손에 맡기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방을 위한 기도

주여 우리에게 자유 주소서
그 자유 인하여
우리
당신 마음에 더 가까이 간다면
당신 사랑의 불
내 안에 더욱 강하게 타오른다면

주여 우리에게 자유 주소서
죄와 자기만족에서
나를 보호하실 수 있으시다면
내 발길 어지럽히는
헛된 명예와 허영에서
나를 지킬 수 있으시다면

주여 우리에게 자유 주소서
당신은 아시오니
이 몸 어디 있어야 님께 더 쓸모있는지
자유와 말씀 안에서, 노예의 사슬에서
어느 게 님께 더 풍성한 수확을 드리는지를...

주여 우리에게 자유 주소서
당신의 전지(全知)하심
옳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시간에
당신께서 원하시면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의 뜻 거역할 수 없사오니

노예의 사슬이 풀리는 날은 왔다. 해방의 날. 1954년 1월 8일 우리는 수용소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1월 22일 고향인 독일에 도착했다. 고국에 돌아와 생각지 못한 사랑과 기쁨과 친절을 넘치게 받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구석 답답하고 슬펐다. 북한의 교회가 해방될 때까지는 우리는 다시 찾은 자유의 행복을 완전히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이별

길 위해 옮겨지는 자그마한 걸음
노예생활도 교활한 거짓말도
마침내 마침내 다 사라졌으니
이제는 자유스런 해방의 몸

길 위에 옮겨지는 무거운 걸음
내 심장 짓눌려 피를 흘리니
고행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그 아픔을 짐작하리라

길 위에 옮겨지는 괴로운 걸음
상처를 깊이 새겨 주나니
주님 사랑이 부르시어 함께 맺어진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만 하노라

길 위에 옮겨지는 마지막 걸음
눈물이 앞을 가리우네
우리네 소명의 나라 한국이여!
언제 다시 우리를 부르려느냐